

견봉쇄골 관절탈구의 수술적 치료의 비교

중앙길병원 정형외과

김영규, 최상규

서 론

견봉쇄골관절 탈구는 견관절 주위의 불안정성을 야기시키는 원인 중 관절와상완관절 불안정성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질환이다. 견봉쇄골관절의 탈구시 적절한 정복 및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봉쇄골관절의 퇴행성 변화, 불안정성, 운동장애 및 동통을 야기시킬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보고하고 있으나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동반 손상이 있거나 보존적 치료가 힘든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2,6, 12,20,22}. 최근 심한 전위가 있고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오구견봉인대를 이용한 재건술을 강조하고 있다¹⁵.

이에 저자들은 손상 정도에 따른 수술의 방법 및 각 술식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1994년 2월부터 1997년 1월까지 인천 중앙길병원 정형외과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던 급성 견봉쇄골관절 탈구 환자중 최소 12개월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28례에 대해 술후 결과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994년 2월부터 1997년 1월까지 인천 중앙길병원 정형외과에서 급성 견봉쇄골관절 탈구로 치료를 받은 환자중 최소 12개월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28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추시기간은 14.2개월이었고 최단 12개월에서 최장 21개월이었다. 남자 20례, 여자 8례이었고 연령분포는 17세에 최고 66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39.5세였다. 이중 20세에서 49세까지는 20명(83%)이었다. 좌측 14례, 우측 14례로 동일하였고 dominant 15례(53.5%), non-dominant 11례(39.2%)였고 2례(7.1%)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손상원인은 교통사고 12례(42.8%), 추락사고 7례(25%), 운동손상 6례(21.4%), 기타 3례(10.7%)였다. 손상기전으로 직접 압박손상은 17례(60.7%)였고 간접손상은 6례(21.4%)였고, 나머지 5례(17.8%)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동반손상은 10명에서 14례있었고 늑골손상 6례, 두부손상 3례, 경골골절 3례, 다발성 좌상 2례였다. 탈구의 분류방법은 Rockwood와 Green^{17,18}에 의한 방식을 따랐으며 제 3형이 17례(60.7%), 제 4형이 1례(3.5%), 제 5형이 10례(35.7%)였다. 술식에 따라 Phemister¹⁶변형술식 10례, Bosworth³변형술식 10례, Weaver-Dunn²¹변형술식 8례에서 시행하였다.

본 저자들은 동반손상이 심한 경우 및 고령의 환자나 제 3형의 손상인 경우 Phemister변형술식이나 Bosworth변형술식을 시행하려 하였고, 젊고 활동적인 환자나 제 5형의 손상인 경우 Weaver-Dunn변형술식을 시행하려 하였다.

결 과

저자들은 제 3형 이상의 급성 견봉쇄골관절 탈구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28례를 대상으로, Taft scoring system 결과 판정법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통증 및 강직현상의 주관적 평가는 평균 3.4점, 근력 및 운동범위의 객관적 평가는 3.2점, 방사선 평가는 3.3점으로 전체 12점에서 9.9점을 획득하여 결과판정상 양호의 결과를 보였다.
2. 손상 정도에 따른 결과상, 제 3형의 17례중 14례에서 양호 이상의 결과를 보였고, 제 4형의 1례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제 5형의 10례중 8례에서 양호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3. 술식에 따른 결과상 Phemister 변형술식을 사용한 10례중 8례에서 양호 이상의 결과를 보였고, Bosworth 변형술식을 사용한 10례중 8례에서 양호 이상의 결과를 보였으며, Weaver-Dunn 변형 술식을 사용한 8례중 7례에서 양호이상의 결과를 보여 총 28례중 23례에서 양호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4. 합병증으로 1례의 석회화 소견, 2례의 금속 나사못 이완, 1례의 K-강선 파손이 있었으나 결과에 큰 영향은 없었다.

결 론

결론적으로 손상 정도나 술식에 따른 결과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활동성이 많은 환자에서 오구견봉인대를 이용한 오구쇄골인대 재건술이 보다 좋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술 후 단계적인 조기관절운동이 객관적 및 주관적 평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